

민주노동운동의 문제 - 이차 등급 높이기

김진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 문민정부의 출범, 그리고 그 이전 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 합하여 87년 민주화 대투쟁, 그리고 통일자주운동이 모두 해방후 누적된 독재, 군부파시스트체제를 대중운동으로 전복시키고 민주화의 일차 기초작업을 진행시켜 온 것이라고 이해해 본다.

2. 그것이 전진이었다면, 문민정권의 말기에 들어와 거대하게 틀 지워왔던 구체제의 정치적 습속이 민주화의 전진 발걸음을 붙잡고, 구체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후퇴의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경찰이 집단적 성추행이라는 '전복자적' 기질을 발휘하여 한총련을 진압하고 민족민주운동의 걸음을 후퇴시키고 양심수를 양산하고 있다. 지배블럭은 자본의 무한한 경쟁력을 앞세워, 민주노동운동이 줄기차게 전국적 조직건설을 통해 노동관계법의 악법조항을 개혁하려는 운동에 틈새를 만들어, 오히려 자본가=사용자의 이익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한 노동통제에 짝을 맞추어 가는 것으로서 공안통제의 법적 틀

거리인 ‘안기부법’의 개악을 들고나서고 있다.

3. 이러한 후퇴의 시도를 보고, 80년대 피땀 흘려 투쟁해 온, 또는 투쟁대열에는 나서지 않았지만 군부파시스트의 행패가 너무 심했다고 상심했던 대다수 양심적인 서민, 국민들도 세상을 거꾸로 돌리고자 하는 작태에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4. 새로운 해, 1997년은 이러한 후퇴의 힘에 대하여 민족민주운동 세력이, 또는 선량하고 양심적인 시민이 민주화의 새로운 차원을 모색해 가는 시기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백년 전 세기말에 이상한 징후처럼 나타났던 조건의 변화가,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새로운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음도, 새로운 차원 모색, 그것을 우리는 ‘이차 등급 높이기’라는 표제로써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5. 현재 자본의 운동 차원은 일 백년 전에 비하여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지평을 넓혔다. 우선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운동을 억제하거나 극복해 보고자 했던 사회주의 체제 ‘국가’가 20세기말에 거의 소멸함으로써, 자본주의는 지금 어떤 경제적 체제의 대안적 힘에 의해 억지 당하지 않고 세계를 자본주의체제로 깊고, 넓게 획일화시키고 있다. 생산과 소비, 유통의 세계화는 단초로서 논급되는 바,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세계 체제’였다는 차원을 훨씬 뛰어 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의 운동은 이제 만나는 대상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상품화’시키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의 테두리으로써, 문화공동체의 테두리으로써, 또는 원시적 생활공동체으로써 그 지역과 혈통이 소규모로 결합하여 살던 형태를 모두 ‘상품화’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그 이전 양태의 기초를 해체시키고 있다. 해체시킨 요소로써 상품이 되는 새로운 양태로 결합시켜 세계적으로 전파시키고 있다.

6. 일 백년 전 기계공업의 발전은 ‘대공장제’의 형태로 대기업, 대자본, 대량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새로운 자본주의의 지평을 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과 기술을 자본가의 요구에 순응시켜 과학기술을 자본의 구

성으로 편입시켰다. 이러한 자본구성의 변화는 한편으로 테일러주의, 뒤 이어 포드주의 생산방식으로 발전함으로써, 노동자로 하여금 구상과 실행의 분리에 맞추어 분화, 분해되게 함으로써 노동을 거대생산체제하에서 쉽게 교체 가능한 요소로 전략하게 하였다. 이것은 19세기와는 다르게 20세기 노동운동을 산별노조로 가게 하거나 노동자계급 정당을 추구케 하였다.

7. 그 동안은 식민지시대였다. 적어도 20세기 중반까지는 그러하였다. 크게 세계대전을 치렀다. 대자본과 철강·기계공업을 주축으로 한 중화학공업에 기초한 무기가 합쳐져 ‘식민지’(그 식민지에는 원료도 있고, 값싼 노예와 같은 노동력도 있고, 시장도 있었다.)를 두고 전쟁을 하였다. 자본주의는 무기의 혁신, 생산, 대량생산과 궤를 같이 하였다. 자본주의 생산은 군수품생산과 같았다. 군산 복합체가 자본주의체제의 초석이었다. 이 초석은 노동자, 민중, 식민지민중을 통제하는 데 용이하게 하였다.

8. 이제 바야흐로 첨단 컴퓨터 통신 기술이 새로운 기술과학 시대를 열고 있고 생산체제와 군사체제의 모양을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 극소전자기술은 분명히 2차대전후 핵무기개발과 그것의 우주체제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한편 ‘민간’양태로는 세계적 초고속 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게 하고 있다.

9. 자본가계급은 극소전자기술을 생산과정에 도입함으로써 노동자를 쉽게 다루는 ‘새로운 경영기술’시대를 연출하고 있다. 우선 생력(省力)이다. 그 이전 포디즘(Fordism) 생산과정에 투입되던 노동력의 수를 대량으로 배제시킬 수 있게 되었다. 자동으로 생산과정의 흐름이 진행되고 컴퓨터로서 검색하고 유통까지 돌보게 한다. 첨단 극소전자기술은 소비되는 물품에 관한 정보가 생산라인에 바로 전달케 하여 시장상황을 쉽게 생산상황으로 연결되게 한다. 생산라인은 광고의 매개물 효과를 통하여 소비시장의 소비자들을 구미대로 바뀌게 한다. 소비욕망이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고 그 소비욕망이 쉽게 변하는 바, 주어지는 코드대로 욕망이 반응케 하는 메커니즘도 만들어 낸다.

10. 자본가계급이 사용자로서 노동자를 다룸에 있어, 전에는 성과의 쌓임, 즉 생산성으로서 평가하여 고과하였다. 이제는 노동자의 능력을 일의 흐름 속에서 동작 하나하나 단위로 정확하게 인지케 하는 방법으로, 즉 극소전자기기의 인지작동에 조금의 틈새도 남기지 않고 노출되게 한다. 능력, 그리고 능력주의는 단지 자격증의 유무만이 아니라 생산과정의 행동동작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로서 포착케 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11. 이제 97년 마지막 몇 날에 노동법 개정을 앞두고 사용자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파업기간중 무노동 무임금 및 동일사업내 대체근로허용 등을 도입 제정하려고 한다. 이미 현장에서 첨단 극소전자기술로서 현장통제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동시에, 항상 하나하나의 동작이 인지케하는데 기초하여 평가된 '능력'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파견근로, 변형근로의 여러 형태로 굴리다가 고용상태에서 폐출되는 상황으로 내몰고자 기도하고 있다. 그 시도대로 한다면 노동자는 불안한 노동현장에서 장기간 안정되게 노동할 수 있는 장치가 완전 제거되는 셈이다.

12. 극소전자기술에의 욕망은 비단 생산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한 항상 부추겨지는 무기체계의 전력향상 욕구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전력향상 욕구는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질곡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낭비'의 구조를 창출해내고 있다.

13. 이러한 문제는 민주노총의 합법화만으로 안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정당성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차원을 만들어내고, 극소전자기술이 자본의 운동에 극대로 동원되는 구조에 대하여 그것이 합의하고 있는 정치적 성격을 인지하고 노조 자체가 경제적 이익의 경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인식을 넓혀가고 있는 터전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노조에 가입하는 노동자나 또는 가입하지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각성케 해 가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지난 87년 민주화운동이 일차 기초 다지기 운동을 가져오는 효과였다면, 세기의 말, 1997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그 일차 기초 다지기에서 한

등급 올라가는 이차 등급 높이기운동이 조직되고 추구되어야 마땅하다.
노동운동이 결코 안주해서는 안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KLSI**